■ 경제돋보기

광주 1분기 주택거래 '나홀로 상승' 왜?

수완지구 입주·임대 분양 전환 효과

소유권 등기 이뤄지자 통계상 거래 성사 '활발'

이사철 '집 갈아타기' 한몫…시장 회복 단정 일러

국토해양부가 조사한 결과 지난 1분기 광주의 주택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강남 3구 등 수도권의 주택시장도 꽁꽁 언 상황에서 벌어진 '이상 현상'이다. 통계대로라면 광주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도시가 된다.

하지만, 일선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의문을 표시한다. 지난 연말 이후 개점 휴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거래량이 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광주 '나 홀로' 호황=국토해양부는 6일 "지난 1분기 광주의 주택거래량은 1만3천367건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1분기 평균 거래량(1만523건)에 비해서도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주택거래량은 21만7천817건으로 지난 5년 평균 거래량 31만541건에 비해 29.9% 격감했다.

신용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실물경기와 함께 주택 경기도 가라앉아 강남 3구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모든 지역 거래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광주만 '나 홀로'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더욱이 광주는 이 기간 특별한 개발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인근 전남의 1분기 거래량(5천896건)도 5년 평균(7천423건)보다 20.6% 감소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선 "통계 오류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대규모 입주러시 탓=하지만 거래량이 급증한 것은 맞다. 광주시는 지난 연말부터 본격화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등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입주와 분양전환으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자 거래가 성사한 것으로 통계에 잡힌 것이다.

광산구의 경우 1월 주택 거래량만 지난해보다 120% 급증한 데 이어 2월에는 415%, 3월에도 370%가량 폭증해 광주 주택거래량 증가를 이끌었다.

이로 인해 수완지구 미분양 물량도 1월 5천717가구→2월 5천551가구→3월 5천197가구로 꾸준히 줄었다. 광산구 1천300세대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도 거래량 증가에 한몫했다는 것이 광산구 측 분석이다. 여기에 신학기 이사철 '갈아타기' 수요도 가세했다.

다른 자치구의 주택거래량은 감소했다. 서구 40%, 북구 30%, 남구 25% 등 감소폭도 크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수완지구 입주, 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 등으로 광주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풀이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3代 모녀 승무원 됐어요" 아시아나항공이 6일 아시아나타운 교육훈련원에서 개최한 '3대(代) 모녀 초청, 승무원 체험행사'에 참가한 한 가족이 기내서비스 실습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10가족이 참가해 승무원 유니폼을 착용하고 이미지메이킹과 비상탈출 등 다양한 체험을 했다. 〈금호아시아나 제공〉

삼능건설 회생 개시 결정

광주지법, 관리인에 이승기 삼능건설 대표 선임

법원이 금융권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워크아웃 대상(C등급)으로 분류된 삼능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이한주)는 6일 삼능건설과 계열사인 송촌건설, 송촌종합건설, 목우강재, 삼산기공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달 2일 19억2천600여만원의 어음 부도를 낸 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부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회생절차 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능건설, 송촌건설, 송촌종합건설의 관리인으로 이승기 삼능건설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재판부가 이 대표를 관리인으로 내세운 것은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에 밝은 기존 대표자에게 회생 작업을 맡김으로써 책임경영을 이끌어내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목우강재의 관리인으로 KTFC 대표이사를 역임한 이종련씨를, 삼산기공의 관리인으로는 산업은행 출신인 이길범씨를 각각 선임했다.

법원은 앞으로 법정 조사위원에 의뢰해 이들 기업들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밀 실사에 나서고, 관리인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을 내놓게 된다.

채권단이 3~4개월 뒤로 예상되는 채권자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고 법원도 이를 인가하면 삼능건설 등은 법원의 관리 아래 계획안에 따라 최장 10년에 걸쳐 채무를 이행하며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된다.

반면 채권단 내에서 회생 가치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일 경우 계획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어 향후 실사결과가 삼능건설 회생의 중대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는 기업회생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며 정상화가 전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자구노력이 미흡할 경우 회생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돼 회생절차가 중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희망 근로 소비쿠폰 지급률 30~50%로

자치단체장이 탄력 운영

희망 근로 참여자에 대한 소비쿠폰 지급 비율이 30~50%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시 국회 예결위에서 부대 의견으로 총급여 가운데 희망 근로 상품권의 지급비율을 최저 30% 이상, 최고 50%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 영세민 살리기와 경기 부양을 위해 소비 쿠폰 지급 비율을 50%로 한정했으나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인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또 희망근로사업이 기존 40만명에서 25만명으로 축소되고 신청 기준을 완화하도록 조정됨에 따라 재산과 소득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령, 근로능력, 연고 지역별로 점수를 매겨 신청자를 선발하며, 필요시 1가구에 2인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또 소비쿠폰은 1천원, 3천원, 5천원짜리 뿐 아니라 1만원권까지 지역별 사정에 맞춰 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근로사업은 실직자 등 근로능력이 있는 사회 소외계층에 일자리를 주기 위한 사업으로 월평균 83만원을 현금과 소비쿠폰으로 나눠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추가 지원

광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6일부터 '2009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상시종사자수 10인 미만업체),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이며, 지원한도는 5천만 원 이내로 대출금리 연 3.98%(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거치기간 1년 포함)이다.

자세한 것은 광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건설인재 채용박람회

대한건설협회는 청년층 고용안정과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7~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09 건설인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대우건설, GS건설 등 33개 건설사가 참여해 총 300여명의 인재를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